

한인교회 10명 중 3명 “대면예배 회복되도 온라인 예배 필요”

연령대 관계 없이 온라인 예배 또 다른 예배 형태로 인식
팬데믹 이후 목회자가 갖춰야 할 역량은 “풍부한 영성과 기술”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10명 중 3명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대면 예배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도 온라인 예배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이하 미주장신대)가 릴리 인도우먼트 그랜트(Lilly Endowment Grant) 프로젝트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인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30%는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가 필요하며, 대면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더라도 성도들의 10-30%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번 통계에서는 연령이나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답해 온라인 예배를 또 다른 예배 형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팬데믹 이후 목회자가 갖춰야 할 역량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64.5%가 “풍부한 영성”을 꼽았고,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의력”, “온라인 테크놀로지 숙지”가 뒤를 이으며, 팬데믹 이후 목회자와 교회가 갖춰야 할 조건을 ‘영성’과 ‘기술력’으로 압축시켰다.

교회 내 KM과 EM간 문화이해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4%가 “보통이다”라고 응

답해 목회현장에서 상호간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주일학교 사역자의 이중언어 능력에 대해서는 대략 70%가 “중요하다” 혹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해 사역자들의 이중언어 능력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반영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 실행한 김경준 교수는 “이번 조사는 편의 추출 방식의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미주 한인교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기초 통계자료로 사용할 만큼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연



미주장신대 김경준 교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디렉터)

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주장신대가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의 대표적 자선단체인 릴리 재단(Lilly Founda-

tion)과 북미 지역 신학대학원협회(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가 공동해 “다음 세대 신학교육의 혁신과 목회자 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프로젝트는 ATS 산하 270여 개 회원학교들 가운데 240여 신학교가 지원하고 있다. 미주장신대는 이미 1차로 5만 달러의 그랜트를 수령했으며, ‘문화를 아우르는 이중언어 목회학 석사 프로그램 개발’이란 주제로 100만 달러를 지원하는 2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총 인원수는 총 30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성실하게 응답한 299명의 데이터를 2번째 단계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했다.

김동욱 기자

美 장로교 PCA, 동성애자 성직 임명 막는다

미 장로교(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가 동성애자들이 성직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의했다.

미 장로교는 최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제48회 총회에서 ‘오버추어 23’(Overture 23)이라는 제목의 이 개정안을 찬성 1400표, 반대 400표로 통과시켰다.

수정된 법안은 “미 장로교 소속 임원들은 행실에 있어서 바르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이에 모순되는 정체성을 주장하는 이들(예를 들어 게이 기독교인, 동성애 성향의 기독교인, 동성애 기독교인)이거나, 타락한 욕망(동성애 유혹에 한정되지 않은)의 죄성을 부인하거나 점진적인 성화의 실재와 소망을 부인하거나, 유혹이나 죄적 성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www.covenantpca.net

향이나 행동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데 실패할 경우, 성직자로 임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차 총회 투표 전 지역 교회에서 표결되고, 그 후 PCA의 교회 헌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교단은 목사 후보자에 관한 ‘오버

추어 37’(Overture 37)도 확정했다. 이 결의안에는 “계속되는 죄악된 욕망과 더불어, 죄적인 행동에 반대하는 실질적인 싸움을 신중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기록돼 있다.

또 “후보자는 죄를 극복하기 위한 은혜의 역사에 따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를 의지하면서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는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한다. 약함은 남아 있겠지만, 이는 평판이나 그의 남은 죄(동성애적 욕망)의 자기 고백에 의해 알려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일로 알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PCA는 이번 총회에서 입

양 및 위탁 돌봄 서비스 단체로 ‘베다니 크리스천 서비스’ 대신 ‘라이프라인 아동 서비스’를 승인했으며, 그 이유로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헌신’을 꼽았다. ‘베다니 크리스천 서비스’는 얼마 전 LGBT 부부에게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정,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사려려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브릿지교회 창립30주년 Festival

김재호 목사(브릿지교회)

THE BRIDGE CHURCH
브릿지교회 T.800.484.0992 3045 Old Conejo Rd, Newbury Park, CA 91320

- 찬양 간증집회** JULY 4
지명현 목사 (소리엘 / 하나님이사여, 아픔의 축복 등 다수)
7월 4일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 찬양 간증집회** JULY 11
이은수 목사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베스의 기도 등 다수)
7월 11일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성회** JULY 23/24
최홍주 목사 (PCIGA 총회장, 에브리데이교회)
7월 23일 (금)~7월 24일 (토) 오후 7:30 (2일간)
- 비전(Vision) 집회** JULY 25
김승년 목사 (베른 루지 비전교회, 1대 담임목사)
7월 25일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2부 예배시 장로 &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 창립 30주년 감사 및 위임예배** JULY 25
2021년 7월 25일 (주일) 오후 4:00

커피브레이크 국제 컨퍼런스, 전세계 411명 참석 성황

제 13회 커피브레이크(www.coffeebreakkorea.org) 국제 컨퍼런스가 '소망을 따르는 기쁨(Joy in Hope)'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올해 컨퍼런스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24년 만에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미주 지역을 비롯해 14개국, 180여 개 교회에서 총 411명이 참석했다. 대살로니가 전서를 주제 본문으로 20여 개의 강좌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59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며 스스로 체험하고 배우는 자리도 가졌다.

올해 컨퍼런스는 온라인으로 진행돼 평소 커피브레이크의 양육과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던 지역과 해외에서도 참여했으며, 녹화영상 다시 보기가 제공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진행됐다. 또 전도와 양육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가진 동역자들이 전 세계에서 모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 13회 커피 브레이크 국제 컨퍼런스

는 강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웨비나 형태를 띠는 반면, 커피브레이크는 400명이 넘는 인원이 줌 미팅 라이브 방식으로 양방향 소통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59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4-5회에 걸쳐 교제를 나눌 예정이다.

글로벌 커피브레이크 백은실 대표는 "모든 것이 멈춘 듯 한 팬데믹 동안, 더 멀리 더 많은 분들과 복음을 나눌 인도자를 양육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어려움도 있었지만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커피브레이크는 올해로 사역 51년을 맞으며, 현재 20여 개 국가, 약 55개 이상의 교단에서 활용하는 소그룹 사역이다. 커피브레이크 국제 컨퍼런스는 해마다 미국과 한국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여 서로를 격려하고 비전을 나눌 수 있었다. 온라인을 통한 양방향 복음 전파와 양육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도 올해 컨퍼런스에서 얻은 유익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온라인 행사

김동욱 기자

미주 낮은울타리, 다음 세대를 세운다!

청소년 틴컬처인사이트스쿨, 어린이 VBS 개최

"성경적세계관으로 문화를 읽도록 돕습니다!"

TEEN CULTURE INSIGHT SCHOOL

특강 : 소명 찾기(How do you find your calling?)

2021년 7월 15일-8월 19일 매주 목요일 EST 7:30~9:00PM (6주간)

대상 : 7TH- 12TH GRADE
방법 : 각 가정에서 화상 앱 ZOOM
등록비 : \$60
Venmo - wooltarius
Zelle - wooltarius@gmail.com
PayPal - paypal.me/wooltari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 간사 조희창 목사)는 여름 방학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진행한다.

특히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청소년 담당 사역자가 없는 미주와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교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낮은울타리 미주본부가 준비하는 여름사역은 십대 자녀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리더로 세우는 시간으로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청소년 사역인 "틴 컬처 인사이트스쿨(Teen Culture Insight

School)"은 6주 과정으로 자녀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문화를 세상을 읽도록 돕게 된다. 이 기간 영화 읽기 및 소명찾기, 영화로 복음을 변증하는 훈련과 강의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틴 컬처 인사이트스쿨"은 오는 15일(목)부터 8월 19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미 동부시간, 미 서부 시간 오후 4시30분-6시) 6주간 7학년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등록비는 60달러.

어린이들을 위한 2021 ZOOM VBS(Summer Camp)는 "Adventure Island Arise! Shine!"을 주제로 오는 19일(월)부터 23일(금)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미주 동부시간) 5일간 진행된다. 아이스브레이크 게임, 찬양과 율동을 통해 복음의 핵심을 듣고,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지게 되며 대상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다. 등록비는 50달러.(둘째와 셋째는 각각 40달러로 할인 된다.)

조희창 목사는 "코로나 이후 줌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섬겨오면서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모습에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부흥의 시간 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문의) 646-300-4790

국제 라이온스 클럽, 한타 시니어 센터에 5천 달러 기금 전달



국제 라이온스 클럽 4-L3 지구(총재 노재훈)는 지난 1일 한타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정문섭)를 방문해 5천 달러의 기금을 전달했다.

노재훈 총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넘도록 한인 어르신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기금이 재개관을 준

비 중인 시니어센터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문섭 이사장은 "노인아파트를 나서지 못하는 고령의 한인들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재개관을 통해 코로나를 잊을 수 있는 신나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비영리단체등록 ■특허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교단설립 60주년 기념대회 및 예배

날짜 : 주후 2021년 7월 11일(주일)
시간 : 오후 4시
장소 : 중앙루터교회 (Los Angeles Olympic + Wilton 코너)

- 제1부
경축사 : 이상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이의완 목사(증경총회장)
오바울 목사(미주노회 노회장)
나성총 영사, 최석호 가주68지구 하원의원,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 3남 랄프안 박사
- 제2부 : 졸업예배
- 제3부 : 학위수여식
- 제4부 : 미주대한신학 7대 총장 추대식
- 제5부 : 류당열 목사 자서전 출판 기념회

“재개방의 기쁨 가운데 다가오는 가장 큰 영적 도전은 편의성”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 “온라인에 함몰된 목회, 한국교회도 도전 겪을 것”

지난 15일 캘리포니아주 전면 재개방 이후 한인교회가 가장 집중돼 있는 LA지역 한인교회들은 큰 기쁨 가운데 예배를 팬데믹 전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고 있다.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또한 최근 주일 예배를 3부까지 늘리고, EM권을 비롯한 각 부서 예배를 재개하는 등 리오피에 맞춰 빠르게 예배를 정상화 하고 있다.

박은성 목사는 재개방은 분명 한인교회들에게 희소식이지만 의외의 도전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인지하지 못한 사이 온라인에 익숙해져 버린 편의성과의 싸움이다. 워낙 큰 어려움을 준 팬데믹이기에 재개방 후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EM권을 빼고 예배의 모습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편의성이 성도들을 비롯한 목회자와 모든 교역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박 목사는 온라인이 팬데믹 중에 목회에 큰 도움을 준 요소이긴 하지만, 재개방 이후에는 대면 신앙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에 국한시켜야 본질적인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또 작은 교회들간의 설교 무한경쟁 등의 상황도 온라인이 가져다 준 새로운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인교회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와의 인터뷰는 캘리포니아주 전면 재개방날인 6월15일 나성영락교회에서 있었다.

-전면 재개방을 맞는 소감을 말씀해 달라.

먼저 감사하다. 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난 느낌이다. 팬데믹 중에 많은 간증들도 있었고, 나성영락교회 성도들의 진실한 신앙을 목격할 수 있었다. 성도들도 재개방으로 인해 매우 격양돼 있는 것을 느낀다. 교회를 오시는 분들의 밝은 표정에서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다.

-팬데믹 가운데 목회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나.

사실 팬데믹 초기에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와 예배인원 문제 등 갑자기 어려가지 어려움이 한번에 몰려왔다. 그 때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하나님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요'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처음에 다 같이 어렵고 어

리동절한 시기를 넘어서서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고 팬데믹 중임에도 재정적인 부분이나 목회적 부분과 선교나 사회봉사 영역까지도 어렵지 않게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이 정말 감사하고 나성영락교회 성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됐다.

팬데믹은 교회로 하여금 불필요한 체중을 줄이게 했다. 정말로 우리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미래적으로 봤을 때 재정이나 인력이나 영적인 부분들까지 허투루 쓰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발전적인 시간이 됐다.

제가 나성영락교회에 와서 시도했던 것이 온 성도들이 같은 날에 같은 성경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었다. 교육국까지도 적용시켜서 모든 성도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왔다. 성도들은 마치 팬데믹을 예상하고 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을 정도로 전 교인 성경묵상은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하나였다. 그런 신앙훈련을 나성영락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많은 한인교회들이 나성영락교회의 사역을 주목해 봤다.

나성영락교회가 갖는 이름의 상징성이 갖는 무게를 저 또한 느끼고 있다. 그 상징성이라는 것은 밖에서 부여되는 것인데 전임자들이 훌륭하게 교회를 이끌어 주셨던 덕분이다. 때문에 팬데믹 상황 가운데 많은 한인교회들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주목해 보셨던 것 같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다시금 느낀 교회의 역할은 교회가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성영락교회가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 각성하도록 만든 곳이 바로 한국교회였다.

사실 팬데믹 초기에 사회가 정말

어려워질 때 교회가 도움에 나서야 한다고 장로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5월 한국의 영락교회와 잠실교회, 은누리교회 등 7개 교회에서 10만 불을 한인들을 도와달라며 보내주셨다. 그 7개 교회 목회자들은 대부분 나성영락교회나 저와 친분이 있는 분들이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돕기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빛진 마음이 들었다.

사실 코로나는 한국이 먼저 피해를 입었다. 그 시기를 놓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오히려 한국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면서 자성과 함께 교회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그 당시 나성영락교회도 늦었지만 급하게 10만 불을 모금해서 보냈다. 그 모금 내역을 보면 은퇴한 분들이나 살림이 빠듯한 성도들의 가정에서 십시일반 모은 것이었다. 한 젊은 부부가 크게 내어 놓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기도 했다.

교회는 사회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지난해 경험했다. 사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에 대한 벽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재개방을 앞두고 미자립교회를 돕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20만 불 모금을 작정했고 지난주에 그 금액을 다 모을 수 있었다. 장로님들이 올해 한번 더 주변을 돕는 기금을 모으면 어떨지 의견을 냈고, 모금을 진행하면서 서로가 성도들의 따뜻한 함을 깨닫는 시간이 됐다. 나성영락교회가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장로님들의 간증이 계속 됐다.

-재개방 이후 목회적 부분에 있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올해의 나성영락교회의 표어도 '회복'이다. 2018년 표어가 한 몸(One Body)이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이 한 몸 되기 위한 과정을 위한 것이지만 '한 몸'이 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회복' 또한 올해 모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나성영락교회



나성영락교회 예배당 전경

든 것이 다 회복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

단순히 팬데믹이 끝나고 목회에 있어 모든 것이 잘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가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이브한 생각으로는 목회가 어려운 시기가 됐다. 지금은 또 다른 장이 펼쳐졌고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숫자적으로 물질적으로 회복되면 그것이 정말 회복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됐을 때 정말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은 끝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과 시련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팬데믹이 가져다 준 목회의 또 다

른 도전은 바로 온라인 설교의 무한 경쟁인데 이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저와 같이 고민하고 있다. 그 동안 설교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했고 클릭 수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또 이 설교가 성도들이 교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특히 작은 교회들의 경우 온라인 설교 경쟁이 필연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졌다. 한국교회보다 수평이동이 훨씬 많은 이민교회 안에서 어떻게 작은 교회들이 이 무한 경쟁 속에 생존할 수 하는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팬데믹을 지나며 이민교회 앞에 다가왔다. 교회들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할 시기다.

김동욱 기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의면하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예수전도단), 주선애교수(성신대 영매교수), 이영환교수(예수전도단), 송정영목사(복음주의 경동대), 권준목사(중앙대), 신정민목사(동원대), 유관지목사(동일대), 김민석목사(KCC공동대)

박상원 목사 책의 편저자

* 열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의면하지 않았다'는 복음 통일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아성도들의 순교종교로 지아에서 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과 완수하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해외구매: GBMV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동역사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성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선교·전도용 날개 없는 선풍기를 나누어 드립니다

미주 성시화에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날개 없는 고급 선풍기를 교회 및 전도·선교 기관에 나누어 드림으로써 전도·선교 사역에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 미국이나 중남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선풍기로 스티커를 붙여서 기증하는 기관의 이름을 부착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후 심사하여 배부 여부와 배부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대상 : 교회와 전도·선교 단체 및 기독교 기관 (개인인 운영하는 단체나 기관은 제외됩니다.)
▶ 연 락 처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621 S Virgil Ave #455,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전화 : 담당자(cell) 213-527-8647 / 사무실 213-384-5232 / 이성우 목사(cell) 213-675-6493
▶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 신청마감 : 2021년 07월 10일까지
▶ 이메일 : mijuholycity@gmail.com ▶ 온라인 신청 : www.holycityusa.org
▶ Pay to : Mi Ju Holy City Movement ▶ Mail : 621 S. Virgil Ave #455, Los Angeles CA 90005

※선교 사역을 위해 1개 당 10불 씩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13

“멕시코 일주 선교지 방문기(5)”

이번 칼럼으로 멕시코 일주 선교지 방문기의 마지막을 쓰려 한다.

밴 차량으로 두 선교사 가정(4명)이 멕시코 신학교를 출발하여 바하 캘리포니아주 최남단에 있는 도시 로스카보스를 향해 선택한 길은 엔세나다 길이 아닌 그 반대편 5번 길이였다. 조슈아 추리들이 수없이 펼쳐진 대평원을 달리다가 모래사막이 나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우리 선교사들은 그의 수목원 야외 카페에서 그가 개발한 아침 식사 “버섯과 치즈 캐사디아”와 호박 꽃잎 꿀차를 먹으며 기쁨을 더했다. 정말 잊지 못할 환상적인 맛이였다.

과테말라지역에서 목회하는 여호사밧 목사는 본교회뿐 아니라 13곳의 예배처소를 담당하고 있다. 지금 방학 기간이라 우리 학교 재학생이 내려가 그중 한 곳을 임시 담당하고 있다. 그 산골에 있는 예배처소에 모이는 성인들이 80명이다. 여호사밧은 “사명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잘 전할 수 있는 후배 목사들이 속히 와서 나와 동역하기를 바랍니다” 말했다.

그렇게 후배들을 바라는 곳이 그곳만이 아니다. 산피아고, 꼬미탄, 빨랑게, 파빠출라 등 이미 우리 동문 목사들이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 그들이 한결같이 우리 선교사들에게 후배들을 자기들 지역으로 배치해 달라고 청을 하고 있다. 그 목회자들이 말했다. “멕시코 어느 신학교에서도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4년간 합숙하며 공부하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도 새벽기도회를 날마다 학생 전체가 드리는 학교는 없어요. 어느 학교도 매일 경건회를 오후 1시에 전체가 매일 드리는 학교는 없어요. 어느 학교도 학기 초마다 2주간 성경읽기를 일독씩 하고 시작하는 학교는 없어요. 날마다 기도과 예배를 모두 함께 드리는 학교는 우리 학교 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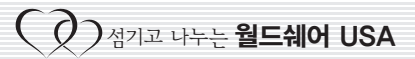
이런 훈련을 경험한 우리의 제자들이 곳곳으로 파송되어 그들의 목회도 매일 새벽기도와 매일 성경 읽기를 가르치며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 선교사들은 이번 멕시코 일주 여행 중에 보았던 제자들의 놀라운 사역들을 되돌아보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찬송하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리며 기쁨 가득함으로 오직 감사만 올려 드렸다. (끝)

다음 날 아침부터 차로 달리면서 멕시코 시티를 지나 Puebla, Veracruz를 지나 Chiapas에 입성 Tuxtla, San Cristobal, Ocosingo, Santiago, Comitán, Palenque, 과테말라 국경인 Guatemok, Tapachula, 그리고 돌아오면서 Tampico, Monterrey를 거쳤다. 그들 지역을 중심으로 깊은 산, 도심 속 곳곳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일구어 온 멕시코 신학교를 졸업한 동문 목사들의 헌신적인 목회와 교회 개척 사역들을 보았다.

오꼬싱고의 안토니오 목사는 농업개발 사역을 한다. 도심 가운데 수목원을 운영한다. 아내도 상경대를 나왔다. 두 부부는 가난에 겨운 오꼬싱고 산속 화전민 교회에 나타리버섯 농장을 소개하며 다닌다. 다른 어느 농산물보다 비용이 안 들고 수확의 회전율이 빠르고 또한 다른 농작물보다 가격이 비싸다. 교회의 교인들이 공동으로 버섯 농장을 갖추고 공동작물 공동판매를 하여 교인 가족들 전체의 생활 향상을 도모한다.

안토니오의 꿈은 나타리버섯 뿐 아니다. 공동으로 가꾸고 수확할 수 있는 우량의 천연 벌꿀 재배, 호박 꽃잎 차, 꽃잎들을 배합한 식사재료 개발 등 정착 오꼬싱고의 농작물이 멕시코 전체를 뒤덮을 계획이 있다. 그는 신학교 시절 배운 아베스의 기도와 너의 입을 크게 벌리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의 농업개발 비전을 한 걸음씩 다지고 있었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② “밀레도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나를 방문하고 이어서 헬라를 방문하고 아시아로 돌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드로아(Troas)에 잠시 머물며 주간의 첫날(주일)에 성찬식도 하고 설교도 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앓소(Assos)로 가서 헤어졌던 일행들을 만나 일행들과 함께 미톨레네(Mitylene), 기오(Chios) 그리고 사모(Samo)를 지나 밀레도(Miletus)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밀레도는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마지막 지점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밀레도(Miletus)는 소아시아(Asia Minor) 서쪽의 출구 역할을 하는 항구 도시였으며 라트미안만의 남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밀레도는 해안에 자리 잡은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과 바다에서 밀려온 침전물이 쌓여서 큰 배의 출입이 어려워졌고, 지금은 항구가 메워져 해안에서 7~8km 떨어진 내륙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밀레도는 성경에 꼭 두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와 밀레도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밀레도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등장합니다. 인생을 정리하는 바울이 밀레도에 둔 병든 드로비모(Trophimus)를 언급합니다.

행전 20장에 기록된 바울의 밀레도 설교는 사도행전의 다른 설교들과는 차별성이 부각되는 설교입니다. 특히 바울의 밀레도 설교는 성도들(장로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라는 차원에서 바울의 서신서 교훈과 설교 내용이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디벨리우스는 누가의 창작성을 강조하면서 서신서의 가르침과 바울의 밀레도 설교의 가르침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루돌프 페쉬(Rudolf Pesch)는 이 설교의 메시지와 사도 바울이 쓴 목회서신이 유사하다고 전제하면서 몇 가지 이유들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의해 장로들이 세워졌고, 둘째로 목회 서신이 전제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 출현을 언급하고, 셋째 이 설교와 목

회서신에서는 복음과 바울의 권위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 예르벨(Jacob Jervell)은 바울의 이 설교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만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당시 전체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전한 설교에서 교회론과 목회론을 풀어 설명합니다. 바울은 회상(행20:18절~21절), 전망(22절~24절), 자기변명(25절~27절), 경고(28절~31절), 축복(32절~35절) 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분석을 하는 근거는 22절, 25절, 32절에 지금(Now)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바울은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장로들을 설득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리고 자신처럼 교회와 양떼를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밀레도는 오래인 고대 도시입니다. 밀레도는 B.C.14세기에 요새화된 도시입니다. 망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 B.C. 6세기경에는 이오니아 해양 산업의 선도적인 중심지로 출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B.C.334년에 알렉산더 대제가 정복하자 밀레도는 새 역사를 맞이합니다. 이때 놀라운 건축물들이 밀레도에 세워졌고 밀레도는 크게 번창했습니다.

밀레도는 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한 학문의 도시입니다. 고대 헬라 역사 지리학자 헤카타이오스(Hekataios)가 밀레도 출신입니다. 또 최초의 철학자, 최초의 수학자, 최초의 과학자로 알려진 탈레스(Thales)가 밀레도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레스를 철학의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탈레스는 고대 그리스 7대 현인중의 한 사람입니다. 탈레스는 그가 창시한 밀레

도 학파 때문에 유명합니다. 밀레도 학파는 그리스 최초의 철학 학파입니다.

밀레도 학파는 탈레스 이후 아낙시만드로스와 아낙시메네스가 이끌어갔습니다. 이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보다 백 년 이상 앞선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당시 성행했던 헬라 신학적 관점이 아닌 새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만물의 근원을 자연의 논리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 학파를 자연 철학파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탈레스의 또 하나 이름은 자연철학자로 부릅니다.

좁은 반도에 위치한 밀레도는 네 개의 항구를 가진 해양 도시였습니다. 태풍과 외침을 막아주는 지형 조건은 평화를 누리는 조건이 되기도 했지만 노리는 적들이 많아 많은 전쟁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략과 멸망 그리고 재건이 반복되었는데, 재건될 때마다 번창했습니다. 성서지리학자 마크 윌슨은 자신의 책(Biblical Turkey)에서 밀레도가 B.C.6세기경에 가장 번성한 헬라 도시(most prosperous Greek city)라고 말합니다.

밀레도는 농업도시로 출발했습니다. 곡물, 포도, 그리고 올리브의 생산으로 밀레도는 큰 부를 누렸습니다. 아울러 밀레도에는 시장들이 발달했습니다. 미첼 레드쉬(Mitchell G. Reddish)는 ‘밀레도에 세 개의 시장(Agora)이 있었고, 그중 남부시장은 고대 헬라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다’고 말합니다.

밀레도에는 대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헬라 시대에 5천3백명 정도를 수용했는데, 로마 시대에는 1만5천명으로 확장되었고, 로마 말기에는 2만5천명으로 계속 확장했습니다. 이 극장의 의자들에 새겨진 글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다섯 째 줄, 서쪽에서 두 번째 줄 의자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유대인들 좌석”이라고 새겨 있습니다. ‘데이빗 그레이브’의 성서고고학(Biblical Archaeology)에서 ‘이는 유대인 지정석을 의미하고, 이는 밀레도에 상당수의 유대인이 거주한 증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지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섬김!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UN과 협력합니다. 월드쉐어는 질병과 가난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장애 빈곤자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카타콤에서도 예배의 본질을 지킬 수 있었나?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7)

본지는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교수의 소논문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을 연재합니다. 오늘의 예배 음악을 진단하고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교회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II. 초기 기독교 예배를 통해서 본 예배와 음악

서론

필자는 그동안 6번에 걸쳐, 최초의 공식 예배인 모세와의 시내산 예배를 통해 포스트 코비드시대 사역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내용의 중심으로 전환되어진 초기 기독교 교회의 예배와 음악을 가지고,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 역사적 고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찬 예배공동체, 그리고 순수한 열정의 찬양공동체였던 초기 기독교 교회를 서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예배에 주는 도전들을 발견하고 포스트 코비드시대 교회가 나아가야 할 예배와 음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역사적 고찰

초기 기독교 교회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와, 가정에서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드린 예배로 나눌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용했다.(마가복음 1:21-28, 3:1-6, 마태복음 4:23, 눅4:15, 16-31, 요한복음 6:59) 사도바울 역시 전도여행을 할 때 흠어져 사는 유대인들, 즉 거룩한 땅에는 거주하지 않으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용했다.(사도행전 13:5, 14:1,17:1,10,17:18:4,19).

이처럼 이스라엘의 소망과 구원을 전파하기 위한 장소로 회당을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울뿐만



Grave niches in the Catacombs of Domitilla, Rome, ©wikipedia

이 아니었다. 아블로도 예배소에서 그같이 했다.(사도행전18:26)

바울 신학자 랄프 마틴 (Ralph P. Martin 1925-2013)은 "유대인의 회당은 그 예배 형태가 기독교의 예배 형태에 영향을 미친 것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 말한다.

가정 교회의 예배전통은 사도행전 2장 46-47절 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최초의 기독교 예배로 볼 수 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이 기록을 보면 이들은 함께 교제하고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초기 기독교 교회 예배의 내용은 사도행전 2:4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2가지 요소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된다. 하나는 말씀에 강조점을 둔 말씀의 전례 (Service of The Words) 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의 전례(Service of the Table) 이다.

말씀의 전례는 당시 회당의 전통에서부터 이어져 온 말씀의 가르침으로 볼 수 있고, 성찬의 전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를 오늘날 온라인 예배로 연결해서 비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무리일 수 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가정교회 예배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이지 오늘날처럼 한 가족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초기 기독교 교회의 예배

초기 기독교 교회의 예배 내용은 그동안 드렸던 구약의 전통과 다른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구약의 예배가 시내산 사건을 기념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약에서 언급하는 제2의 출애굽 사건, 즉 그의 백성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로 정착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배학자 로버트 웨버(Robert Eugene Webber 1933-2007)는 초기 기독교 교회 예배의 기본 구조는 말씀과 주의 만찬에 강조점을 두고 이에 기도와 찬송이 수반되는 2부 구조로 예배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바울 신학자 랄프 마틴 교수 초대 교회는 찬양, 기도, 교훈 이라는 세 개의 기본 요소들이 있으며, 나아가 초대 교회는 노래 속에 태어났다고 이야기 한다. 그는 "초대교회 예배에는 복음을 찬양하는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있었다., 그들은 뜨겁게 찬양하는 공동체였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배송가와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초기 기독교교회의 예배 전통이 기초가 되어 중세 서방 교

회(Western Church)나 동방 정교회 (Eastern Orthodox Church) 등이 예배 예전(Liturgy)을 만들게 된 것이다.

한편, 종교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천여 년 동안 발전되어 왔던 중세 서방교회의 예전이 초대교회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 전통을 뒤로한 채, 초기 기독교 회당 예배의 전통을 그대로 전수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예전을 만들어 그가 생각하는 기독교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키려 했던 것이다.

초기 기독교 예배의 전통은 구약과 신약의 예배 전통에 큰 영향을 받고 기본 뼈대가 형성 됐다. 그러나 여기에서 큰 변화는 예배의 중심 내용이 예수그리스도 복음, 즉 구약의 성취로 인한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중심이 됐고, 이 내용을 말씀과 성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도, 찬양이 이루어져 삼위일체를 송축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됐다.

1세대 사도들의 전승을 이어받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250여 년 (AD 64-AD313년)의 로마 정국의 혹독한 폭정 속에서도 예배가운데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며 성도의 교제가 끈이지 않았고 결국 카타콤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본질을 지키며 이어갔다.

그들은 진정 복음으로 인한 소망을 확신하며 모든 조건 속에 그리

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 한 진정한 예배자들이었던 것 같다. 그것이 그 오랜 세월의 혹심한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말살되지 않은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당시 그들은 서로 만나면 첫 인사가 "그가 살아 나셨습니까! (He is Risen!)" 였다고 한다. 이들이 가졌던 이 부활의 소망과 신앙이 오늘날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도전들이 무엇인지 깊이 상고해 보자.(계속)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중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issions@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美 국무부 “북한 최악 인신매매 국가”

북한이 미국 국무부의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또 다시 최하위인 3등급(Tier 3) 국가로 지정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무부는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은 2003년 처음 3등급을 받은 이후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평가됐다고 한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특히 북한의 강제 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면

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8만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이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식 기소와 유죄 판결, 선고 등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들을 포함해 수용소에 수감된 주민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벌목과 광산, 제조 혹은 농업 분야에 투입돼 강제 노동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강제 복송 문제에도 주목했다고 한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돼 강제 노동이나 고문, 낙태,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다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북한 당국이 중국에 억류돼 있는 200여 명의 탈북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미 국무부

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인신매매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개최된 전화 브리핑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에 대한 VOA의 질문에 “분명 북한에는 더 광범위한 인권 문제가 있지만, (복송 문제는) 미국이 중국 정부에 제기한

많은 사안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수년 간 중국과 북한 모두에 대한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탈북자 혹은 그 외 다른 북한 국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로 인해 이들이 직면하게 될 노동과 다른 형태의 인신매매, 인권 유린 등과 같은 위협성을 언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권고한다”며, 탈북자들이 특히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황에서 인신매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VOA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을 지정하고 강력히 규탄해 왔다.

최악의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미국 대통령은 인도주의나 무역과 관련되지 않은 미국 정부의 대외 지원에서 이들 나라들을 제외할 수도 있다고 한다.

올해 보고서에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미얀마(버마) 등 17개 나라가 3등급을 받았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동성애 청소년 금지 해제’ 미 보이스카웃, 8년간 200만명 감소



보이스카웃 활동

한 때 270만 명이 넘는 회원을 자랑했던 미국 보이스카웃(Boy Scouts of America, BOA)이 현재 76만 2천 명의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단체가 동성애 청소년들에 대한 금지를 해제한 지 8년 만에 200만 명이 줄어든 수치다.

1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보이스카웃의 대표 프로그램인 ‘Club Scouts and Scouts BSA’의 회원 수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97만 명에서 112만 명으로 급감했다.

AP 통신이 최근 검토한 수치에 따르면, 그 이후로도 이 프로그램의 회원 수는 현재까지 35만 8천 명이 더 감소했다.

미국 보이스카웃은 전직 스카우트들로부터 8만 2천 건의 성적 학대 주장에 직면해 있다. 그 결과,

이 단체의 변호인단은 연방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며,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자 신탁 기금 조성을 협상하고 있다.

로저 모스비 미국 보이스카웃 회장 겸 CEO는 AP통신에 252개 지회가 이러한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부동산들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모스비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것이 어렵고 다소 감정적인 결정을 이해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생존자에게 균등하게 보상하고, 스카우트의 임무를 지속하는데 있어 필요한 단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에 따르면, 단체의 총 수익도 2019년 3억 9천 4백만 달러에서 2020년 1억 8천 7백만 달러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미국 보이스카웃은 2013년 동성

애 청소년 금지법을 사실상 해제하는 개정안을 채택한 이후 특히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회원들을 꾸준히 잃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켄터키주 루이빌 소재의 대형 교회인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천 교회’는 이 개정안 발표 이후, 보이스카웃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또한 2018년 초, 보이스카웃에 가입한 물문교 청소년 수는 50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줄었으며 2019년 말에는 물문교가 보이스카웃과의 관계를 단절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14세부터 18세인 청소년 약 18만 명이 보이스카웃을 탈퇴했다.

보이스카웃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개적으로 동성애자 스카우트 지도자를 허용하는 회원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또한 추가로 소녀들에게까지 회원 자격을 확대했고, 미국 걸스카우트로부터 소송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보수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을 둔 새 보이스카웃 단체인 ‘트레일 라이프 USA(Trail Life USA)’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2014년에 출범한 이 단체는 9개월 만에 1만 4천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팬데믹 기간에도 꾸준히 성장해 현재 3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서북미 폭염 사망자 속출... 교회가 에어컨·냉각센터 제공



크리스 시몬스 목사. ©WFAA 보도 영상 캡처

미국 북서부 지역과 캐나다에서 수십명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가운데 이 지역 많은 교회가 냉방 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보호처와 에어컨을 제공하고 있다고 1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아이다호에서는 제일장로교회(First Presbyterian Church)와 트리니티 침례교회(Trinity Baptist Church) 등 냉각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예배당이 있다고 한다. 웨스트 시애틀 기독교 교회(West Seattle Christian Church)는 교회 체육관 시설을 시애틀 지역에서 냉각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기온은 42.2도까지 올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센터스퀘어는 보도했다.

텍사스 달라스에 소재한 코너스톤 침례교회(Cornerstone Baptist Church) 크리스 시몬스 목사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 주민 가정에 무료로 에어컨을 제공하기도 했다. 시몬스 목사는 WFAA에 “교회가 더위에 대한 절박한 전화와 이메일을 받고 나서 냉각 사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익명의 기증자께서 약 7년 전 에어컨이 없어 노인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시청하고 에어컨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다”라며 “기증자께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에어컨을 제공해 그런 식으로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라고 말했다.

마사 플레밍은 지난해 북텍사스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한 후 에어컨 작동이 멈추면서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됐다고 한다. 최근 코너스톤 교회 에어컨 핫라인의 메시지에 따르면 교회는 6월 16일 250개의 에어컨 제공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요청을 처리 할 때까지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했다.

시몬스 목사는 Fox4에 “일반적으로 매년 150대의 에어컨을 나눠 주지만 올해는 달랐다”라며 “교회는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위협에 처한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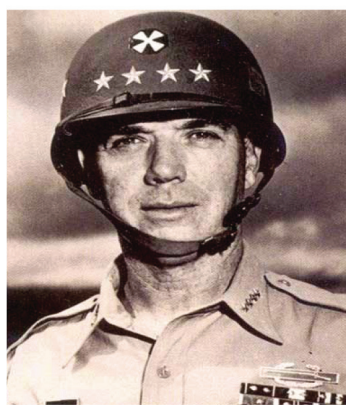
Never Ending Story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다큐영화 (제작참여)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준 180 만명의 미국군용사들중, 34,000 전사자들과 13만 부상 군인들, 그리고 3,700명의 실종자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40구의 유해들...

아울러, 이들의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역사의 교훈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께 이 영화를 바칩니다.

현재 4개국 (한,미,러,중) 현지 촬영중이며, 이번 6.25 71주년때 상영될 수 있도록 뜻깊은 제작후원을 바랍니다. (감독 윤학렬)



** 후원과 문의는 아래 미국 공동제작자인 기드온동작선교회로 해 주시면 되고, 모든 후원자와 단체의 명단은 영화자막에 게재합니다 **

미 성서박물관 ‘1215년 대헌장’ 특별전시회 연다



©성경박물관 트위터 캡처

미국 성서박물관이 2일부터 '교회와 성경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담은 '대헌장(Magna Carta)'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헌장: 폭정, 정의, 자유"라는 주제의 이 전시회는 성서박물관과 호크우드 인터네셔널이 제휴하여 2022년 1월 2일까지 박물관 5층에서 진행된다. 대헌장은 1215년 6월 15일에 영국의 존 왕(King John)이 국왕의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독립선언서, 미국 헌법 및 권리장전, 유엔의 세계 인권선언 및 영국 인권법 탄생에 중요한 영감을 준 문서이다. 이 전시회에는 현존하는 4개 중 하나인 1217년 대헌장의 원본과, 영국의 가장 강력했던 귀족들과 존 왕 사이에 '옛적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최초의 합의서인 "왕의 문장(King's Writ)"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회 측에 따르면, 1215년 6월 최초의 헌장 조약이 만들어진 루니메데(Runnymede)에 왕과 반란 귀족들이 모였으나, 존 왕은 문장에 있는 약속을 어겼고, 대헌장은 그가 사망한 1217년에서야 결

실을 맺게 된다. 제프리 클로하(Jeffrey Kloha) 성서박물관 큐레이션 최고책임자는 이번 전시회가 "대헌장의 배경에서 교회와 성경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했으며, 특히 첫 번째 조항은 "영국 교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대헌장의 종교적 자유 요소"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주 발표한 성명에서 "대헌장의 타당성 및 이로부터 발전된 권리의 중요성, 그리고 대헌장의 창안과 지속에 있어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중심 역할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전시회에는 1215년 당시의 신앙성경과 함께, 미국 헌법과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이 입수한 권리장전의 사진, 미국 독립전쟁 직전인 1774년 대륙회의(Continental Conventions) 과정을 담은 신문 기사, 영국 군주제의 폭정을 규탄한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이 쓴 논문인 "상식(common sense)"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미국 종교인 73% “대면 예배 참여” 지난해 비해 7% 늘어

미국에서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응답자의 73%는 “향후 몇 주 안에 대면 예배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AP통신과 여론조사기관 NORC 공문제연구소가 미국인 1,12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면예배 참석 의지를 밝히고 있는 미국인은 지난해 대비 7% 증가했다. 반면, 당분간 교회나 유대교 회당 등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27%가 나왔다. 스콧 매코넬 라이프웨이 리서치 전문가는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AP통신에 “많은 교회가 전염병에서 살아남지 못했고, 일부 교인들은 ‘불확실한 상태(limb)’에 빠져 있다”면서 “교회가 추진력과 교

인들을 더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예배 인원의 감소는 올해 초 꺾임이 심한 여론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미국은 80년 만에 처음으로, 종교 예배에 참석한다는 인원이 절반 미만인 49%로 떨어졌다. 1937년 꺾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70%는 예배를 드렸고, 이 수치는 60년간 유지됐고 199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제프리 M. 존스 꺾임 선임 편집장은 “2020년에 나타난 감소의 일부는 일시적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성인 중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사이에서 훨씬 낮은 수준의 종교성과 교회 회원을 감안할 때, 향후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유진 기자

미 대법 ‘동성결혼식 꽃 판매 거부’ 주인에 벌금 원심 유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꽃 판매를 거부한 꽃집 주인의 항소를 거부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이로서 워싱턴 주 대법원이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꽃집 주인에게 부과한 1천 달러의 벌금은 유지된다. 반면, 보수 성향 대법관인 클라렌스 토마스, 사무엘 알리토, 닐 고서치는 이번 판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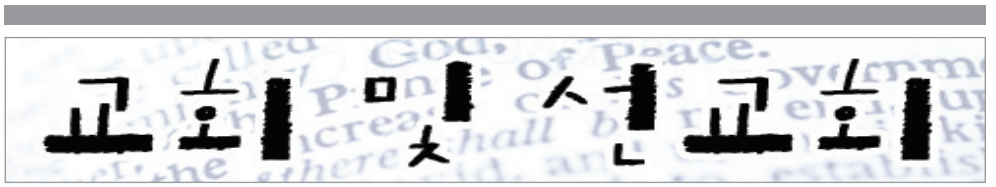


꽃집 주인 바로넬 스투츠만(Barronelle Stutzman)씨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2013년 3월 꽃집 주인인 버로넬 슈투츠만은 고객인 로버트 잉거술, 커트 프리드 컵플로부터 자신들의 동성 결혼식을 위한 꽃장식을 의뢰 받았으나,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제작을 거절했다. 그러자 워싱턴 주 검찰이 그녀에 대한 처벌에 나섰고, 8년 간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슈투츠만의 법률 대리인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판결이 확정된 2일 트위터를 통해 “버로넬 슈투츠만은 그녀의 신앙에서 신성시하는 의식을 위한 작품 제작을 거절하기 전까지, 수년 간 동성애자 고객을 친절하게 모셨다”며 “그녀는 깊은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는 이유로 고소와 박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연맹은 “미국대법원이 이 사건을 듣지 않기로 한 결정은 실망스럽지만,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7년 2월 워싱턴 주 대법원은 그녀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주 정부의 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나, 2018년 연

방대법원은 원심을 무효화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자 워싱턴 주 대법원은 2019년 6월 슈투츠만이 성적 지향을 근거로 차별했다며 만장일치로 2017년 판결을 지지했고, 그녀는 동성커플의 법률 대리인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에 의해 고발당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 변호인단은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이 성소수자들이 가계에 들어올 때 동등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슈투츠만의 변호사인 크리스틴 와고너는 CNN을 통해 “모든 미국인의 수정헌법 1조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대한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아무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메시지를 표현하거나 축하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LA 지역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p> <p>LA백송교회 백송회침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p> <p>김성식 담임목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p> <p>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p> <p>씨니김 담임목사</p>
---	--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저세대에)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2인2세를 영육하며, 이방인들을 치유하며, 선교를 영감을 주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en 코너) T. (213)386-2233</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p> <p>장태원 담임목사</p>
---	---

<p>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p> <p>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p> <p>최순환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회 오전 6:20</p> <p>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p> <p>한현영 담임목사</p>
--	---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p> <p>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강진웅 담임목사</p>	<p>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2블럭)</p>
--	--

<p>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진유철 담임목사</p>	<p>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p>
--	---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나성제일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커뮤니티를 살리는 예수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김성지 담임목사</p>	<p>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얼예배(엘리엔데) (소세베) 오전 11:0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	---

<p>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30(화-금)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 신 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	--

<p>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도모임가 만민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p> <p>김경렬 담임목사</p> <p>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토)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곽부환 담임목사</p> <p>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p>
--	--

<p>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이순환 담임목사</p> <p>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강지원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	--

LA동부, 라스베가스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p> <p>고태형 담임목사</p> <p>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이희철 담임목사</p> <p>갯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p>
---	--

<p>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김성원 담임목사</p> <p>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믿어 함께 살아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4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es.org</p>	<p>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p> <p>신용환 담임목사</p> <p>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p>
---	--

<p>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p> <p>우영화 담임목사</p> <p>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조용철 담임목사</p> <p>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p>
---	--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침례교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6: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네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금)
중보기도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5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일 내 길에 빛이오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헌양성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밤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찬양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MP예배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3부 예배 오전 11:00 교육부 후원예배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5:30 (수요주중예배: 오후 6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종교동부 오전 11시 (금요주중예배: 오후 7:30)
1954 Hiram St., Northridge, CA 91326 EM: 오후 1:30
T. (818)9363-6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종교동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s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파키스탄 법원 ‘신성모독’ 혐의
기독교인에 종신형 선고**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아시아 비비 석방에 항의하는 파키스탄 무슬림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있다. ©YouTube/TRT World

신성 모독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은 파키스탄 기독교인이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6월30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파키스탄 라왈핀디 법원은 검찰의 증거 조작과 범죄 누명을 썼다는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파르 바티(56) 씨에게 종신형을 확정했다.

바티의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인 295-C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대개는 사형에 해당하나 증거 불충분으로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바티는 그러나 자신은 이슬람 예언자에 대한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 박해 감시 기구인 ‘국제기독교연선(ICC)’은 바티가 경찰에 의해 그가 저지르지 않은 신성모독죄를 자백하게끔 고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바티는 지난 2012년에 처음 체포되어 2017년 5월3일에 혐을 선고받았다.

바티와 그의 변호사는 2016년 사망한 여성과 관련이 있는 등록되지 않은 변호로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며, 부당한 고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인 타히르 바시르 씨는 ‘모닝스

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발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알 수나트 왈자맛의 사무장이기에, 판사가 엄청난 압력을 받아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며 “바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번 판결도 압력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했다.

또한 변호인은 누군가가 바티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심(SIM)카드와 오디오 녹음을 변조했다며 증거 조작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라호르 고등법원이 바티의 항소를 받아들여 결국 무죄를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신성모독법이 오용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 대한 개혁을 미루고 있다.

최근에는 신성모독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아 사형을 선고 받아 8년 동안 수감된 파키스탄 부부가 결국 허위 고발로 밝혀져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국제 박해 감시 단체인 ‘오픈도어스 USA’는 2021년 세계 기독교 감시 국가 목록에 파키스탄을 5위에 올렸다. 인구 2억 8백만 명이 넘는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은 약 4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김유진 기자

**영 감리교 ‘동성결혼 허용’ 결의안
압도적 표차로 가결**



영국 감리교. ©영국감리교회 제공

영국 감리교회가 교회 내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인정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지난날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런던에 본부를 둔 영국 감리회 총회는 이날 열린 총회에서 이같은 결의안을 찬성 256대 반대 45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복음주의자들은 교단에 계속 잔류할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소니아 허스 신임 감독회장은 성명을 통해 “우호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결의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허스 회장은 “우리 교회를 위한 이 역사적인 날 이후 함께 나아가갈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동거 부부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식 동거 또는 공개적이고 더 공식적인 약속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함을 인정한다”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결의안은 “교회로서 우리는 그 은혜가 응답되지 않거나 심지어 관계자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함을 축하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를 의미하며, 사람들이 새롭게 헌신하고 깊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중요한 소명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결의안에 반대해 온 ‘함께하는 감리교 복음주의’(Methodist Evangelical Together, MET) 회장 데이비드 허(David Hull) 목사는 “이 날은 감리교회에 매우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리미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보는 일은 정말 가슴 아프다. 많은 이들이 이 일로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이어 “이 투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삶에 대한 특별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믿는 많은 감리교 성도들이 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결혼과 관계성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동성애자이자 복음주의 운동가를 자처하는, 오산재단 설립자 제인 오잔은 SNS에 “감리교 총회가 교회 내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데 압도적으로 찬성해 매우 기쁘다”면서 “이는 영국의 기독교적 태도 속에 현저한 변화가 있었음을 반영한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소강석 목사, 이준석 대표에 “차별금지법, 당론으로 반대” 요청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한교총을 방문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소강석 목사, 장종현 목사, 이 대표, 이철 목사 ©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서도 교계 목소리 청중해주시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가 자신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개별 차별금지법은 동의하지만 국민의 절대다수의 역차별을 당하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유심히 살펴보시며 당론으로 반대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소 목사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5일 오후 한교총을 방문한 이 대표에게 했던 자신의 인사말을 이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는 “더 나아가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서도 교계의 목소리를 잘 청중해주시기를 바라겠다”고도 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한교총을 방문한 이 대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그분의 주도하에 협의를 통해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 “평균 초혼 연령 남성 36.7세, 여성 33.6세”



©듀오 제공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최근 2년 사이(2019년 6월~2021년 5월) 혼인한 초혼 부부 2910명(1455쌍)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2021년 혼인통계 보고서’를 지난 달 29일 발표했다. 이 업체를 통해 결혼한 이들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6.7세, 여성 33.6세로 집계됐다. 16년 전(2005년 남 33.8세, 여 30.4세)과 비교해 남성은 2.9세, 여성은 3.2세 올랐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 초혼 나이(남 33.2세, 여 30.8세)보다는 남녀 각각 3.5세, 2.8세씩 높았다.

초혼 부부의 평균 나이 차는 3세이다. 남편이 연상인 부부가 89.2%, 남성이 세 살 연상인 커플이 전체의 18.6%로 가장 많았다. 동갑 부부는 7.1%, 여성 연상 부부는 3.7%였다. 여성 연상 부부는 16년 전(1.3%) 대비 2.4%p 상승했지만, 전년(4.5%) 대비 0.8%p 감소했으며,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여성 연상 커플(18.5%)보다는 적은 수치였다.

연 소득 남 6300만원, 여 4000만원... 부부 58.4% 동일 학력

초혼 남성의 중위소득은 6300만원, 여성은 4000만원이다.

부부간 연 소득은 남편이 더 높은 경우가 82.2%로 아내가 더 높은 경우(13.7%)보다 6배 많았다. 아내의 연 소득이 더 높은 경우는 전년(12.5%) 대비 1.2%p 상승했다.

초혼 남녀 과반은 4년제 대졸자(남 65.1%, 여 62.6%)였다. 이어 대학원 졸업 이상(남 26.7%, 여 25.6%), 전문대 졸업(남 6.2%, 여 10.6%), 고등학교 졸업(남 2.0%, 여 1.1%) 순으로 집계됐다.

초혼 부부의 58.4%는 동일한 학력의 배

우자와 결혼했다. 이 중, 부부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자인 경우가 전체의 4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남편의 학력이 더 높은 커플은 23.1%, 아내의 학력이 더 높은 커플은 18.5%이다.

듀오 성혼회원의 직종으로는 일반 사무직(남 35.5%, 여 23.5%)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남성은 의사·약사(13.6%), 공무원·공사(13.3%), 사업가·자영업자(8.8%), 일반연구원(4.0%) 순을 보였다. 여성은 일반 사무직 다음으로 교사(14.2%), 공무원·공사(10.2%), 간호사·의료사(8.4%), 의사·약사(8.1%) 순이었다.

배우자 직업 결함을 분석한 결과, 높은 분포를 보인 일반 사무직과의 혼인이 성별과 직종을 막론하고 대체로 상위에 올랐다. 의사·약사인 회원(남 198명, 여 118명)의 배우자 직업 1위는 모두 의사·약사(아내 25.3%, 남편 42.4%)로 나타났다. 공무원·공직자 남성(193명)의 아내 직업 1위는 교사(23.3%), 교사직(206명) 여성의 남편 직업 1위는 공무원·공사(21.8%)가 차지했다. 이를 통해 전문직과 공직의 경우, 유사 직종 간의 결합을 선호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에 따른 결합에서는 동일 지역 거주자와 혼인한 부부가 94.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타지역 거주자와의 혼인은 6.0%에 그쳐, 물리적 거리가 성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교에 따라서는 무교인 간의 결혼이 56.8%로 가장 많았고, 종교인과 무교인 간의 결혼(31.6%), 동일 종교인 간의 결혼(8.9%)이 뒤를 이었다. 같은 종교를 고집하기보다는 무교인을 수용해 혼인에 이른 남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서다운 기자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KM 청년예배 오후 2:00
세백기도회(월·목)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남일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gc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세백기도회(월·목)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찬양예배 오후 2:00
세백기도회 5:30(월·목)/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세백기도회 오전 6:00
세백기도회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목),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 순복음교회
복음 생애로 함께 살려 내는 생애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 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종교개혁,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종교개혁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 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종교개혁 오전 11: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한 신자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 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엘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FAM에 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엘바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릿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아)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세백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 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목)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년 학위수여식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이사진,교수진 및 졸업생 일동은 본교 학위수여식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졸업하는 학생들의 앞날을위해 기도와 격려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위수여자

명예목회학박사:진건호목사 | 명예신학박사:이학진장로
신학석사:손사라목사 | 교역학석사:채수전,김나오미,백선경,로완리
신학사:임정열,안정희

일시: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LA 찬양교회 (김성대목사사무)
3401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 2021학년도 여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6월 21일 개강**

실시간 인터넷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2021년 첫 열매를 드리며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시대에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풍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축복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은 사건 후 인류에게 결실을 맺기 위한 조건으로 땅을 흘려 수고를 해야 하는 대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인류가 씨를 뿌리고 수고함으로 수확한 결실을 거둬드려 감사제를 드린 것이 가인과 아벨의 첫제사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감사제가 하나의 절기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그들이 출애굽 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냈기 때문이다.

특히 광야에서의 생활은 유목생활이었고 그곳에서의 환경은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다. 아마도 이와 같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생활 중 소망이 곡물을 수확하여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소산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맥추감사절은 곡물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추수 감사절기 중 하나이다. 맥추감사절의 이름은 보리와 모맥 추수 직후에 거행되는 전통적인 절기인 칠칠절, 즉 오순절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오순절이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절기를 말한다.

무엇보다 맥추절은 초실절로 불리기도 하는데 유대력으로 니산월 14번째 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먹은 뒤 찾아오는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베어 선전에서 “초실절” 제사를 드린 것을 말한다.

이 초실절의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셨다.”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때 “초실절”에 드렸던 곡식은 언제나 “보리”였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어 제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초실절”의 또 다른 이름으로 “맥추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즉 “초실절”이 종교적인 이름이라면 “맥추절”은 종사적인 이름인 것이다.

“초실절”의 한자어는 ‘처음 초(初)’, ‘열매 실(實)’자를 써서 ‘첫 열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초실절”의 예언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 비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던 사실과 연관이 있다. 이처럼 “초실절”은 부활절의 모형인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사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처럼 2021년 또 다른 절반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영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담겨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반년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코로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했다. 그리고 이제 첫 열매를 감사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맥추감사절의 정신은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현이라는 사실이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남아있는 2021년 하반기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드리는 예배에서 경험하는 예배로



신용환 목사
나성한미교회

시편 116:12-14, 95:6-7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4가지 유형의 예배가 있습니다.

(1) 보는 예배 (2) 드리는 예배 (3) 경험하는 예배 (4) 살아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느 때보다 예배 생활 그리고 생활예배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더욱 발견하는 시간였습니다. <예배의 성과가 곧 인생의 성과이며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진짜 성공이다>라고 하는 격언에 대해서 더욱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드리는 예배의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예배에는 감동도 있어야하고 은혜도 있어야하고 도전도 있어야하고 깨달음도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며 관계맺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예배는 잘 보고 예배는 잘 드렸어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없었다는 그 예배는 완전한 예배 잘 드려진 예배라고 할수 없습니다.

존파이퍼 목사님의 말처럼 “이 우주에는 2가지의 열정만 위대한 존재한다. 예배를 받으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스스로 만족케하려는 인간의 열정이다.” 하나님은 이 우주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

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키는 예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누구를 향한 열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만족 시키고자 여기에 오셨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예배는 먼저 하나님을 만족케하고 그 다음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Worship)은 최상의 존재에게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통틀어 가장 귀한 것을 모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려 놓는 것입니다.

시편 116:12-14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까?>(하나님께 갚아드리는 것) 외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얻는 해답은 <내가 받은 구원의 잔을 여호와와 이름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하조 <여호와와 모든 백성에게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았습니다.>(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드리는 것)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인물중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자, 자신의 전 재산 전존재를 담은 향유를 깨뜨리며 예수님께 올인했던 마리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 12:3)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그분의 인격에 응답을 해야합니다. 예배가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이유는 <만남과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손에 예배를 통해서 조율이 되어야하는 약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영혼을 조율하시도록 가까이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조율(튜닝)되어져서 내 삶이 변화(터닝)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가까이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의 마무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찾아오셨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사람으로 꼭 채우는 것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속에 하나님으로 꼭 채우게 되는 것이다.”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교회 지도자들의 굴복



김인수 목사
전 민주장신대 총장

이런 와중에서 평양 기독교 내선친목회(基督教內鮮親睦會) 회원 심익현(沈益鉉) 목사가 총회원의 신사참배를 즉시 실행할 것을 특청하자 이를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당일 정오에 총회는 부회장 김갑창을 임원 대표로, 각 노회장들을 노회 대표로 을밀대(乙密臺)로 가는 길에 크게 세워 놓은 평양 신사에 나가 절하였으니, 장로교회가 태양신 우상 앞에 공식적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 숙인 비극적 순간이었다. 감옥에 가기 두려워 신앙의 절개를 꺾고 우상 앞에 엎드려 있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장로교회의 변절이 서글프게 시작되고 있었다. 또한 총회는 “신사참배 결의안을 총독, 총감, 정부국장, 학부국장, 조선군 사령관, 총리대신, 척무대신 제 각하에게 전보를 발송하기로 가결”하였으니, 무력하고 굴절된 교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었다.

선교사들은 오후 1시에 따로 모여 총회에 항의서를 제출할 것을 결의하였고, 같은 달 12일에 권찬영(權燦永) 외 25명의 연서로 “총회의 결의는 하나님의 계율과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발언을 허하지 않고 강제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일본 헌법이 부여한 신교 자유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요지의 항의서를 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항의서는 경찰의 강요로 각 하되고 말았다. 그래도 항의서를 제출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두운 시대에도 양심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재속에 약간은 남아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 해 10월 장로교회는 ‘시국대응 기독교장로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 총독이 참석하여 지난 달 감리교 총회에서 한 내용과 꼭 같은 훈시를 하면서, 황국신민의 근본정신에 반대한 종교는 절대로 존립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였다. 참가자 약 3천 명은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하고 일본 국기를 앞세우고 시가를 행진하였다. 이들은 조선 신궁에 참배한 뒤에 남대문소학교에서 신도대회를 개최하고 황거요배, 국가합창, 무문장구를 기도하고 강본(岡本) 소장의 시국강연이 있던 후 산회하였다.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그 해 12월 장로교회의 흥택기, 김갑창, 감리

교회의 양주삼, 김중우, 성결교회의 이명직 목사가 일본에 건너가 이세신궁(伊勢神宮) 등지에 참배하였다. 흥병은 목사는 “황국신민으로 국가의 원조를 숭배하고 신사참배 곧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였고, 어떤 자는 “신사참배 하는 일을 우상숭배라 한다면 이는 불경죄에 가깝다고 말해 둡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한국 교회를 절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작태를 연출하였다.

5. 신사참배 거부운동

일제의 간악한 회유와 협박에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우상 앞에 머리 들고 나선 우리 민족교회의 사표(師表)들이 있었다. ‘남은 그루터기’ 같은 순교자와 저항자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줄기 맑은 샘물을 갖게 된 것이다. 세상 모두가 의도적으로 혹은 강압에 못 이겨 일제에 더러운 추구를 던지고 있을 때, ‘백설이 만건곤할 제 독야청청’ 한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투쟁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1940년대 초에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같이 나라를 걱정하며, 기도하고, 후원해 주던 외국 선교사들이 일제에 의해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추방되었다. 대부분의 동역자들은 일제에 부역하고 있었으나 이에 저항한 진정한 신앙인들이

2천여 명에 이르렀고, 감옥에서 순교한 분들이 50여명에 이르렀으며, 폐쇄된 교회만도 200여 곳이 넘었다.

1) 평양 장로회신학교의 반대 시위

신사참배 반대운동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시행되었다. 본격적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난 것은 1938년 초 일제가 전국 노회에 참배를 강요한 때부터였다. 당시 전국에서도 가장 교세가 강하고 결출한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평북노회가 노회장 김일선의 주도로 2월에 전국에서도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평양 장로회신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를 성토했다. 이 때 평북노회 소속 학생 장흥련(張興璉)이 격분하여 평북노회장 김일선이 신학교 입학 기념으로 신학교 교정에 심어 놓은 나무 한 그루를 도끼로 찍어 버렸다. 각 노회 소속 학생들은 노회 단위로 신사참배운동은 노회 단위로 신사참배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에, 평양 경찰에서 이런 기미를 알아차리고 신학교에 들어닥쳐 학생 일곱 명을 체포하였다. 저들은 또한 학생들의 강의록, 설교원고 등 여러 가지 문서를 압수하고, 교수 박형룡과 김인준(金仁俊)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일제 경찰이 신학생, 교수를 체포, 구금한 일은 당시 「동아일보」 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자 신학교

이사장 방위랑(W.Blair), 교장 나부열(S.Roberts) 등 선교사 교수들도 신사참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므로 신학교가 폐쇄되는 운명에 봉착하게 되었다. 교장 라부열은, 우리 미션회의 사업에는 어느 것에도 지 기독교의 신조를 기초로 하여 실행될 것이다. 이 신학교 문제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회에 준거하여야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지금 이 정세로는 개학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이 학교를 개학할 수 있을 시기를 엿보고 있을 뿐인데,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어떠한 때가 개학할 수 있는 시기라고는 말할 수 없다. 언제든지 개학을 할 수 있어서 신학교만은 계속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라는 글 속에서 신학교를 폐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리에 어그러진 상태에서 개학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1901년 시작된 교단 총회 신학교가 4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교역자를 양성하여 오다가 신사참배 결의로 1938년 9월 무기휴교를 선언함으로써 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당시 재학생들은 교수들이 통신으로 강의록을 보내고 시험도 치게 하여 졸업시켰다. 교수들은 「신학지남」의 편집, 총회가 추진하던 주석서의 번역 등의 일을 하면서 때가 올 때까지 다른 일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영타슈
 주일제전
 2021년 7월 11일
 금요일
 2021년 7월 11일
 금요일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0년만 시공하면 원가보다 저렴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들게 한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향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Tel. (213)703-0240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복음이 가리워지는 이유

마태복음 13:3-17



서울성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3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중략)...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본문은 복음이 복음화되지 못하고 가리워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알게 해주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 일곱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논밭에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 단단해진 길 위에 제대로 묻혀 씨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즉시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돌 틈새에 흙이 조금씩 끼어있는 곳에 떨어진 씨앗은 곧 썩어 납니다. 그러나 흙이 너무 얇아서 태양의 뜨거운 열기에 뿌리를 더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지만 가시가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영양분도 흡수 못하게 하고, 태양도 가려서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흑 백 배, 흑 옥십 배, 흑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의미하는 것은 마음이 강박해져서 시멘트 바닥처럼 완전히 굳어버린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역지로 누군가 무엇을 주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마귀에게 즉시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응어리진 심령으로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며 한을 품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너무 예민하며 모든 불행은 남의 탓으로 돌려서 시비하며 걸고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 얻을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상대방을 찢러 아프게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우거져 있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상하고 짜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의 씨는 틈을 수 있지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 배, 옥십 배, 삼십 배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스팔트 같은 굳은 땅을 파서 일구었고 덩어리도 깨뜨리고 돌도 추려내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도 뿌리 채 다 뽑아내 던져 버리고 좋은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서 씨가 나고 꽃이 피어나고 향기도 풍기며 열매도 영글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이 온전하게 한 평생을 지극정성으로 잘 가꾼 사람은 백 배의 결실을 이루어 드렸을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믿음이 너무나 지극정성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백 배의 전도열매를 맺게 해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믿음이 바로서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엉겅퀴는 다 뽑아 내버려야 하는데 그냥 잘라내기만 하면 그 뿌리가 남아 있다가 또 가시가 돋고 뻗어나게 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의 결실이 각각 다른 것은 모두가 회개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만큼 말씀에 전적인 순종의 생활을 힘썼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집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해변에 둘러서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 많은 무리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36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했습니다. 즉 누가 구원을 얻고 못 얻고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을 받은 자들은 이 비유가 깨달아져서 영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남은 생을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인 소망이 구원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부요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의 생명과 하나님이 원래 태어날 때 주신 영까지 다 빼앗기고 맙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그 모든 이득까지 그들의 몫이 되고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의 것을 빼앗아 다섯 달란트를 열 달란트로 만든 사람에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처럼 됨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을 뵈고는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하는 말씀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하며 담대히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

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십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야단쳐서 회개하고 구원 얻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백성들에게 가서 눈이 멀게 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마음이 둔탁해지게 해서 다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옥 가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백성들이 죄 값으로 비참하게 하나님의 형벌과 멸망을 당할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런 역할을 어느때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사6:11-12)"고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예루살렘이 축대밭이 되고 저들이 살던 집은 빈집이 되며, 모든 것이 황폐해질 때까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애간장을 태우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 중에 심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사6:13)"며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이 300만이었다면 30만 명은 포로로 끌려갔던지 혹은 먼 나라로 도망을 갔던지간에 죽지 않도록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후에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될 때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라고 위로하십니다. 나무를 잘라내더라도 그 그루터기가 남는 것과 같이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가 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들이 될 것

이며 그 씨가 이스라엘을 번성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를 통하여 전하라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귀찮아 했기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앗수르에게 가혹하게 짓밟힘 당하고 그 이후 바벨론에게 70년간 작취와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 16-17에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안 믿을 수 없도록 충분히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자기 인생을 제멋대로 설계하며 세상 허욕을 좇아 불의와 죄악에 앞장 서기도 합니다. 교회 외서는 직분을 내세우고 섬기기를 애쓰기 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지금의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야 하는데 도리어 점점 타락하고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외식적인 신앙생활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참 목자들도 하나님 앞에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이사야의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이같은 신앙이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지를 잘라 그루터기만 남겨 하셨듯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그루터기가 생명의 씨로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독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 up \$2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40^{up}

매직 스테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웹소설의 웹툰화 (2)

참을 수 없는 가벼움... '통쾌함' 만 남은 웹툰·웹소설 복수극

비현실적 대리만족에 몰두하는 웹소설 현실적 비리와 부조리 고발로 시작하나 초월적 사건·계기 통한 비현실적 마무리 삶 진지하게 돌아보는 일에 도움 안 돼

◆신앙과 문학: 죄악과 부조리의 현실에 대한 예리한 자각 독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암울하고 좌악된 현실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이러한 현실이 끝까지 절망적이기만 하리라고 믿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염세적 허무주의를 배격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 이 땅에서도 인간의 부도덕, 비윤리, 무력함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중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참여함으로써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소망을 굳게 붙든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죄악과 부도덕에 짓눌린 자신과 세상을 직시해야 한다. 인간 자신과 세상 자체로부터는 기독교적 소망의 단서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처절하게 좌절하고서, 인간과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갈구해야 하는 것이다.

선(善)과 구원을 향한 인간 개개인의 갈망과 의지를 아예 무시하거나 폄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류 전반을 뒤덮고 있는 죄성, 부조리, 탐욕은 인간에게 남아 있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압도적인 힘으로 짓밟아 버린다.

인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시대별로 간혹 선과 양심을 부르짖고 실천하려 몸부림치던 이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인류 전반은 탐욕에 휩쓸리고 부조리와 타협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기독교 문화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고, 이로 인해 문학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문학에는 양면성이 있다. 현실을

직시하려는 측면과 현실로부터 이탈하려는 측면, 두 상반된 측면이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다. 당연히 기독교 문화는 문학이 지닌 현실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비판 기능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기독교 문학 작품 혹은 기독교적 문학 작품 대부분은 일단 해당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현실을 무섭도록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 절망적 측면들을 조명하는 데 주력한다. 그 래야 독자들이 인간 자체로부터 죄악과 부조리를 극복해 보려는 헛된 희망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단테의 <신곡>, 밀턴의 <실낙원>, 변연의 <천로역정>을 비롯해 스토프의 <툼 아저씨의 오두막>,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톨스토이의 <부활>, 엔도의 <침묵>까지,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주제로 삼는 기독교적 문학작품치고 현실의 암울함에 대한 처절한 자각과 좌절감을 매우 예리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작품이 없다.

이러한 기독교 문학 전통은 또한 서구 문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서구의 근현대 명작 문학작품 가운데는 잔혹하고 비참한 인간 현실을 다루지 않은 작품이 단연컨대 단 하나도 없다.

현실이 괴롭고 비참할수록 그 현실의 밑바닥까지 철저히 파헤치는 것이 잘 쓰여진 문학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된다. 그래야 독자가 현실의 문제와 부조리를 파악하고 더 나은 삶, 더 고결한 삶을 위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상과 문학: 죄악과 부조리의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 조장

최근 우리 대중문화계 원전 콘텐츠의 대세로 등극하고 있는 웹툰,



이미 웹툰화가 이루어진 웹소설 <어게인 마이 라이프>. 소설과 웹툰의 인기 덕에 올해 드라마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웹툰의 원작으로서 위상을 높여가는 웹소설의 문제점은 작가들이 문학의 두 대표적 특성 가운데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는 최대한 지양하고 독자를 현실에서 이탈시키는 데 모든 힘을 쏟는다는 점이다.

웹툰과 웹소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장르문학 중심인 웹소설의 플롯을 보면, 초반 도입부에는 어느 정도 현실이 반영된 설정과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서사가 진행되면 필수록 초반에 소개된 현실적 설정과 캐릭터들은 점차 소모품으로 전락한다.

독자들의 대리만족을 위해 온갖 방식으로 비틀어지고 왜곡되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세계 전생, 환생, 회귀, 마법이나 무공의 기연(機緣), 차원왜곡, 타임슬립 같은 비현실적 장치들이 총동원된다.

올해와 내년 각각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인 웹소설 <어게인 마이 라이프>와 <재벌집 막내아들>을 보자. <어게인 마이 라이프>의 서사는 권력비리를 파헤치다 죽임을 당한 검사가 과거 고등학생이었던 자신

으로 회귀해, 미리 알고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를 한 뒤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는 줄거리이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서사는 흑사당하다 토사구팽을 당해 죽은 한 직장인이 자신을 버린 기업의 막내아들로 다시 태어나 전생의 정보를 바탕으로 온갖 계락을 일삼아 기업을 집어삼켜 복수하는 이야기이다.

둘 다 시작은 현실의 그럴듯한 비리와 부조리에 대한 고발로 시작하지만, 이러한 비리와 부조리가 초월적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통쾌하게 극복되는 비현실적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대중성, 상업성을 생각한다면 문학에서 대리만족이라는 기능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 무섭도록 진지한 현실비판 순문학이 아닌 이상, 비교적 가벼운 주제를 다룬 픽션, 혹은 논픽션마저도 주인공의 모험과 성장, 성취를 통한 대리만족을 선사함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한다.

문제는 순수문학 작가들이 현실적 한계 자각과 대리만족을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조율하려 노력하는 반면, 장르소설 작가들은 현실에서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비현실적 대리만족을 선사하는데 모든 것을 건다는 점이다.

게다가 순수문학 작품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대개 윤리적 함의를 서사의 중심에 놓는 반면, 장르소설들은 윤리적 함의마저 대리만족을 극대화하는 부수적 장치로 소진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예를 들어 웹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초월적인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자신의 무력함을 극복하고 과거의 후회를 돌이키거나 복수를 성공시킬 때, 그 수단이 적법하든 악의적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특히 복수극 웹소설은 주인공이 악역에 못지 않거나 그보다 더한 사이코패스 수준의 잔혹하고 악

질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비윤리적 행태 역시 대리만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무한정 허용된다.

세계적 명성을 누리는 위대한 작품들 중에도 복수극은 여럿 존재한다. 뒤마의 <몽테 크리스트 백작>,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도일의 <주홍색 연구> 등은 모두 처절한 복수를 주제로 삼는다.

세 작품의 공통점은 복수의 주체인 주인공이 복수를 모두 완성했을 때, 스스로의 복수 행위에 대해 심한 윤리적 회한을 느끼거나, 복수를 위해 인생을 바친 나머지 자신의 삶 역시 망가지는 결말을 맺는다는 점이다.

하다 못해 불법감금, 근친상간, 살인 등 온갖 비윤리적이고 정신착란적인 행위들로 가득찬 복수극 영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만 하더라도 주인공 오대수(최민식 분)에게 복수를 마친 이우진(유지태 분)이 복수를 겨우 마친 허무감과 죽은 누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결말로 끝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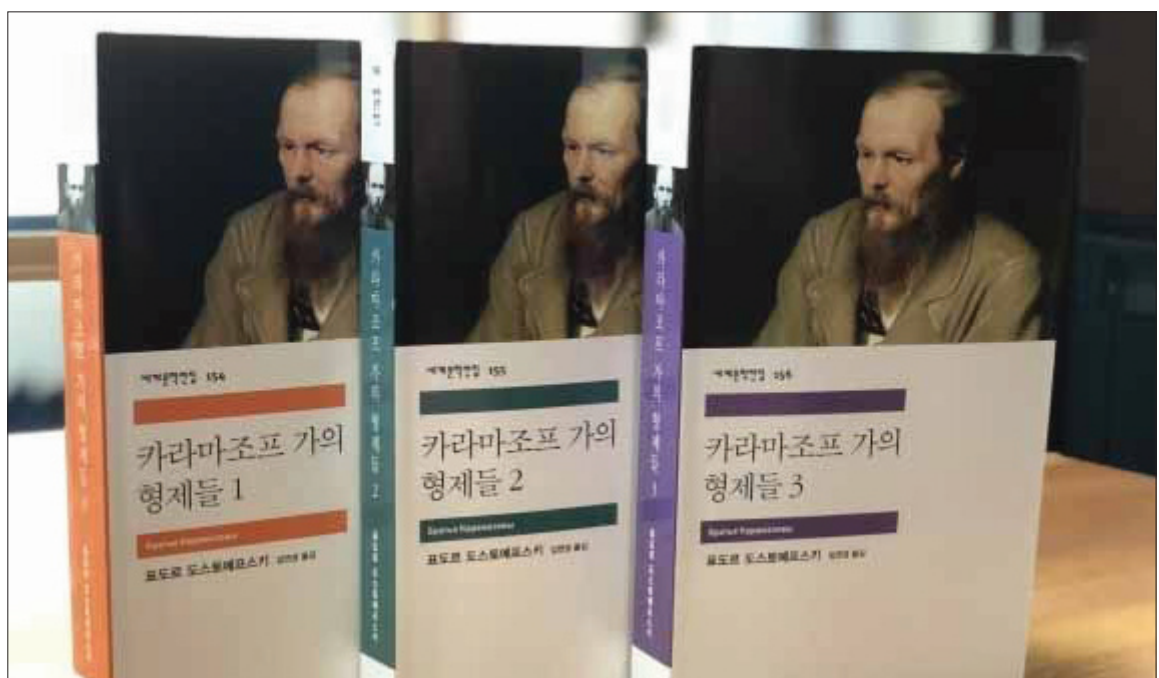
이는 그만큼 복수라는 행위가 사람의 마음과 몸을 망가뜨릴 정도로 어렵고 고되며 저열한 일이라는 현실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웹소설, 장르소설의 복수극에서는 복수가 힘들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그저 통쾌하고 가볍고 즐겁기만 하다.

복수극뿐 아니라 웹소설에서는 과거의 한을 푸는 것이든, 사랑하는 이들을 돕는 것이든, 아니면 사회의 부조리를 극복하는 것이든, 모든 대리만족 행태들이 현실을 완전히 이탈한 상황과 정서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서사는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을 자각하고 자기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인간의 좌절스럽고 비참한 현실에 대한 묘사가 뛰어난 기독교적 문학 작품,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형식으로 출판되는 웹소설은 최근 한국 문학 콘텐츠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박찬욱 감독의 복수극 <올드보이>. 극단적 범죄행위들이 난무하지만 복수의 허무감 혹은 인간의 죄책감을 비교적 현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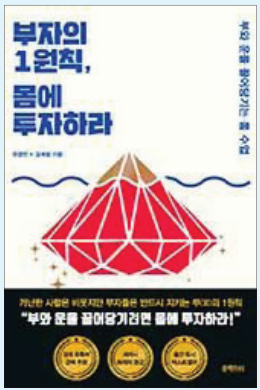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행복한 삶, 몸 관리부터

머리 안 쓰면 몸이 고생? 몸 쓰지 않으면 삶 변하지 않아

마음먹은 일 못하는 이유, 말 안 듣는 몸 한계? 한 게 없는 사람들의 핑계일 뿐 어려움 극복 공통점, 철저한 자기 관리 '시작'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일단 시도

동하지만, 불황 국면에 접어들면 근력 운동에 주력한다. 근력이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사업을 이끌고 갈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앙생활도 건강과 관련 깊어 엘리아, 육체 회복해 사명 감당 건강해야 기도의 무릎도 꿇어 건강한 신앙? 오늘부터 몸 관리!



부자의 1원칙, 몸에 투자하라 유영만, 김예림 블랙피쉬 | 264쪽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몸은 언제나 정직하다. 아프면 신호를 보낸다. 졸리면 자야 하고, 피곤하면 쉬어야 한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한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확실한 것에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다. <부자의 1원칙, 몸에 투자하라>는 몸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알려준다.

저자는 유영만과 김예림이다. 유영만은 한양대 교수이고, 자신을 '지식생태학자'라고 소개한다. 김예림은 운동심리학자이자 몸쓰는 HRD연구소 소장이다.

<부자의 1원칙, 몸에 투자하라>는 제목과 다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나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몸이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과 몸을 관리했을 때 얻게 될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몸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몸은 삶의 가장 기본이자 세상을 바꿔나가는 중심이기 때문이다.

존 레이티 하버드 의대 교수는 "머리를 쓰지 않으면 몸이 고생한다 고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고생하는 거지요."라고 이야기한다. 몸을 쓰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는다.

몸을 쓰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몸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는 몸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계 상황에 처할수록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아니, 머리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된다. 그 상황에서는 마인드 컨트롤도 되지 않는다.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먹은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움직이지 않는 몸이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부지런히 움직인다. 성공한 사람들에 따르면, 한계는 '한 게' 없는 사람들의 핑계다.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실천한 사람들이다.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근력이 강한 사람들이다.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몸이 부실해졌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 시작은 작다. 애플을 처음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친구 워즈니악과 차고에서 첫 컴퓨터를 만들었다.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시도하는 것이다. 시도하고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단계에서 완성이 나오갈 수 있다.

실패를 건디는 힘도 몸에서 나온다. 실패는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우울한 감정을 가져오기도 한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에서는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게을러진 정신은 체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불면의 밤이 불멸의 작품을 낳는다. 그리고 불멸의 작품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만든다. 진짜 부자는 경기가 좋을 때도 밥 먹듯이 운

신형철의 <느낌의 공동체>를 보면 "몸'이 스승이고 '마음'이 제자다. 몸을 보고 마음이 배운다. 그러나 마음이 어느 때고 몸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다. 못된 제자는 제 삶이 안달이 날 때에만 스승에게 손을 내민다"고 말한다.

몸이 스승인 이유는 한계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다. 더는 내 몸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일 때, 마음이 아무리 명령해도 몸을 말을 듣지 않게 된다.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다. 흑인 발레리나 미시트 코플랜드는 "오늘의 당신은 당신이 그동안 흘린 땀의 양에 비례한다"고 말했다.

저자는 몸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이야기한다.

"몸의 역사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몸은 멈춰 서서 뭔가를 생각하는 정체(停滯)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움직이는 동체(動體)다. 움직임을 멈춘 몸은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니체는 "일상의 행동, 삶의 방식이 나를 만들고 끊임없이 개조한다. 마음과 인간성뿐 아니라 육체마저도 변화시킨다"고 말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몸 관리의 필요성이다. 후반부는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십 번의 변화를 겪는다. 손가락의 두께도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심장은 죽기 전까지 쉬지 않고 뛰고, 우리 몸의 세포는 성장과 노화를 거듭한다. 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삶도 유연하게 살 수 있다.

신앙생활도 건강과 관련이 깊다.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아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다. 엘리아는 몸을 회복한 후 나머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건강해야 기도의 무릎도 꿇을 수 있다. 건강해야 사명에 순종할 수도 있다.

100세 시대라고 말한다. 100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몸 관리다. 몸을 잘 관리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오래 할 수 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몸을 관리해야 한다.

김현수 목사 행복하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몸에 에너지가 없으면 금, 주식, 부동산... 그 어떤 투자도 성공할 수 없다! 상위 0.1%가 반드시 지키는 부자의 1원칙

부자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의 산물이다.

부자는 책상에 앉아 머리 굴리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의 산물이다.

부자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나서도 타인에게 부와 재능을 나누는 사람이다.

부자의 기본은 '몸'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부자의 꿈은 사라지고 인생은 부도가 난다.

운동심리학자 김예림의 부자로 가는 하루 15분 운동 수록! 몸의 자세를 바로 세게 하는 등 스트레칭, 중력을 버티게 하는 척추기립근 운동, 하루종일 앉아있는 직장인을 위한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

저자는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은 근력에 있다고 말한다.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Z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공식 홈페이지 www.gideonbrothers.org

(제2차) 8.15 광복 76주년 기념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 [KONA 2021]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Conference [KONA2021]

"북한도 수년내 부흥케 하소서, It Will Surely Come!" (Hab2:3)

북한선교의 다양한 전문가들(역사, 기도, 정치, 경제, 인권, 구제, 지하, 문화, 영화, 교육 등)의 지혜와 전세계의 부름받은 청년들과 연합으로 복음통일의 길로!



(축사) 로렌 커닝햄 총장 YWAM



(격려사) 주선애 교수 장신대명예

- 일 시 : 2021년 8월 9일(월) ~ 8월 14일(토)
- 장 소 : 하와이 KONA(선착순 마감)
- 문 의 : T(425)775-7477, 기독교일보 T(213)739-0403
- 대 상 : 한어/영어권 누구나(영어동시통역)
- 참가방법 : (현장대면 또는 ZOOM으로) 맨 위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회장) 임현수 목사 TMTCC



(연합)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원로



(디아스포라)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복음통일) 박한수 목사 제자광성교회



(회개_신사참배) 오창희 목사 흰돌교회



(통일경제) 신창민 교수 '통일은대박이다'



(중보기도연합)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북한농업) 김학송 선교사 전)평양과기대



(역사교육) 황준석 목사 Friendship Council of U.S



(탈북구출/북한인권)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통일법) 송인호 교수 한동대학교



(통일정치리더십) 김선진 교수 전)통일부흥보팀장



(북한지교회역사)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북한인권영화) 윤학렬 감독 '철가방우씨'



(영어권통일교육) 채지미 목사 NT2 Mission



(간증) 김연영 자매 2015년 탈북



(진행) 황현주 아나운서 사회복지전문연구원



(복음통일네트워크) 박상원 목사 기드온동족선교(GBMW)



주최: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주관: NT2 Mission 협찬:미주기독교일보 생중계: